

# 위대한 아멘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 6-7페이지에 나오는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을 꼭 숙지해주세요.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전한다.



##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

오늘의 말씀 : 고린도후서 1:12~2:4

찬송 : 449장(통 377장, 예수 따라가며)

기도 : 인도자 혹은 자원자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중요한 약속을 지킬 수 없어서 곤혹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 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줍니다.

Kingdom  
Life



## 배경설명 :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사도적 권위를 변호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해로 인해 빚어진 갈등을 화해하고, 거짓 사도들에 경고를 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다. 1:1-11절에는 바울의 눈물어린 노력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인해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1:12-2:11에는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본래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길과 마게도냐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 두 차례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15-16절), 고린도를 경유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갔다. 이러한 계획의 변경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었지만(1:23-2:4절), 고린도의 거짓 사도들은 경솔한 행동이라고 바울을 비난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조차 비방할 구실로 삼았다.

## 도움말 :

- 육체의 지혜(1:12): 세상의 지혜(고전 1:20)와 인간의 지혜(고전 2:5)와 같은 개념.
- 두 번 은혜를(1:15): 마게도냐를 가고 오는 길에 고린도를 두 차례 방문할 바울의 계획.
- 예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하는(17절): 바울이 우유부단해서 예와 아니오라는 말을 한 입으로 동시에 말했다는 대적들의 비난을 바울이 인용한 표현.
- 아멘(1:20): '예', '동의한다', '진실로 그렇다'는 의미.

##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다시 본문을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면서 경청합시다.



## 말씀 깨닫기

### 1. 바울의 일행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양심을 걸고 증언하며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2)

바울은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증언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라고 설명한다.

▶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도움말 참조)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 없이 사람의 힘이나 지식, 즉 세상 방식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함의 결국은 욕망과 교만으로 치닫게 해서 파멸에 이르는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은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행하는 것, 즉 세상 방식과 구별되고 순전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육체의 지혜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누구나 자신의 성격대로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보았을 것이다. 육체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하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지혜로 사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 할 것이다. 자기 주장을 펴면서 고집스럽게 반박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변명하는데 머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인내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들을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2.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두 번 방문하려던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경솔하다는 비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1:15-18)

바울은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함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육체를 따라’라는 말이 12절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로와 반대되고, ‘육체의 지혜로’와는 같은 개념임에 유념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의 말에는 그가 육체의 지혜를 따라 한 입으로 “예”했다가 금방 “아니오”라고 일구이언(一口二言)하거나 표리부동(表裏不同)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울은 자기 이기심을 따라 경솔하게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며, 또한 자신의 이익을 따라 임의로 계획을 변경하지도 않았다.

▶ 하나님의 뜻에 “예”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고집에 따라 임의로 행동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계획이나 약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자신의 이익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경험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웠던 경험을 나누어 보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3.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바꾼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힙니까?(1:23-24, 2:1-4)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위함이었다. 혹은 그들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함이었다.

▶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위해 계획을 변경했다는 설명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2:1-4절 참조)

바울은 만약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케 했을 것이며, 그 또한 근심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말로 보아, 만약 계획대로 고린도를 방문했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크게 책망하고 징계했을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는(고전 4:21 참조) 대신에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계획을 변경했던 것이다. 바울은 언제나 “주께서 허락하시면”(고전 16:7)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결정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유익만을 고려해 결정했다(행 16:6 참조). 참고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넘어가 바울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와 거짓 영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다(11:4 참조).

4.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합니까?(1:19-2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도움말 참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예” 즉, “아멘”을 하는 삶을 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성취하고 계시며, 앞으로 모두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아멘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이러한 설명을 통해, 바울 일행이 육체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하려 하고 있다.

- ▶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린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의 심령으로 아멘 하고, 입술로 아멘을 하며, 삶으로 아멘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버거웠지만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체험을 함께 나누면서 도전 받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 **말씀 따라 살기**

\*인도자는 참가자용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의 질문을 먼저 하라 :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 1. 설교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멘” 으로 화답하는 훈련을 해봅시다. 자신이 ‘입술로’ 아멘 했던 말씀을 적어보고, 한 주간 그 말씀에 ‘행동으로’ 아멘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입으로만 아멘 하고, 삶은 아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일단 입으로 고백하는 중요성은 기독교 신앙에서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는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아멘” 하면서 내 안으로 받고 화답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말씀에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기쁨으로 다가오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힘을 얻게 된다. 내가 어떤 말씀에 아멘 했는지를 기억해 기록해 보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아멘으로 실천해 보자.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 2. 소그룹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 서로 아멘 하는 훈련을 해봅시다.**

예배 시에 잘 하지 않던 아멘을 갑자기 소리 내어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모이고 있는 소그룹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 서로 아멘으로 진실하게 화답하는 훈련을 해보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이다.